

IBKS Global Issue Report

Brace for 2024 Elections

Part 2. 미국 대선



Global Strategy

우 지 연

02) 6915-5663

dnwidus2170@ibks.com

Summary

▶ 2024년 미 대선 개요 및 향후 일정

- 2024년 제 60번 째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가 11/5일(현지시간) 개최 예정.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은 '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
-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 5명 후보 경쟁 중. 민주당, 바이든 현 대통령 외 강력한 후보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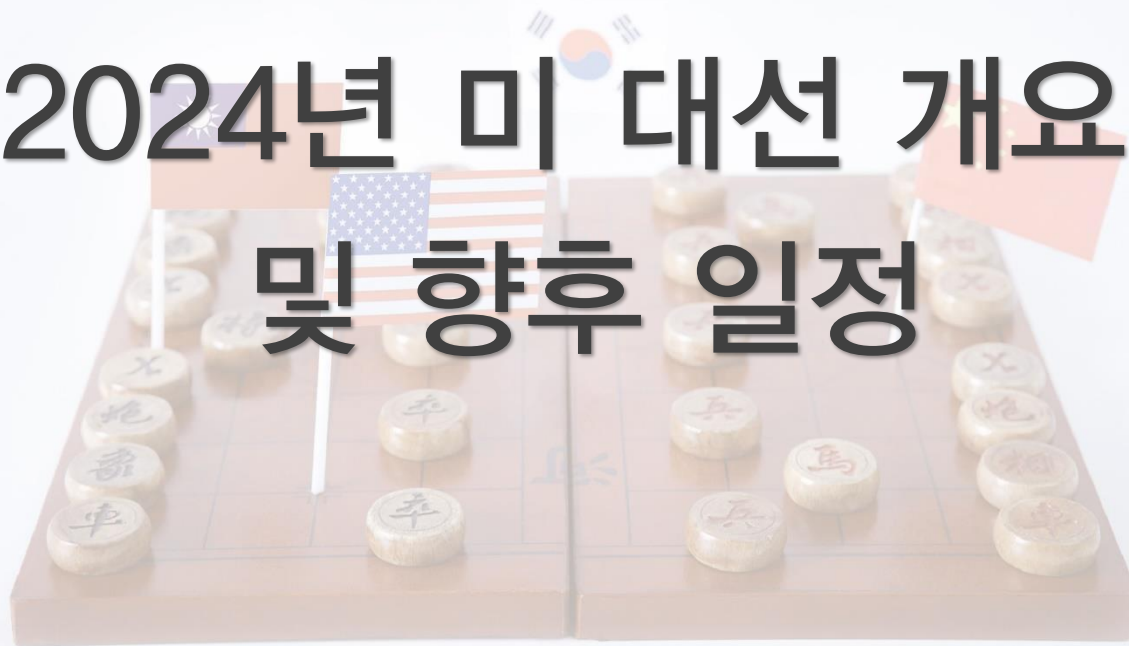
▶ What's different?, 트럼프노믹스 2.0을 중심으로

-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 대선의 판세는 경합주 승리가 결정적
- 사법리스크,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까?
- 미리보는 바이든노믹스 2기 vs 트럼프노믹스 2기 공약
- [트럼프 2.0] 강력해진 America First Policy

▶ Stock Market, Trump vs Biden 재대결 시 증시는?

- 미 대선 이벤트는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켜... 이벤트에 따른 증시 부양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 올해 정당에 따른 정책 수혜주 양극화 현상 제한적일 것
- 시장은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과거 사례를 통해 힌트 얻기(2016년 대선 트럼프 당선 vs 2020년 대선 바이든 당선)
- 금리 상승 부담이 제한적인 트럼프의 승리가 우호적

2024년 미 대선 개요 및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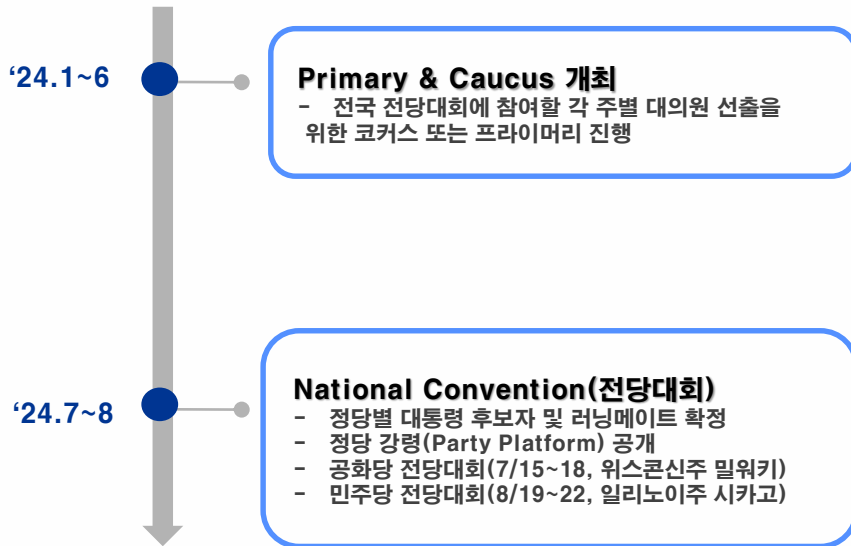
2024년 미국 대선 일정

2024년 미 대선 개요 및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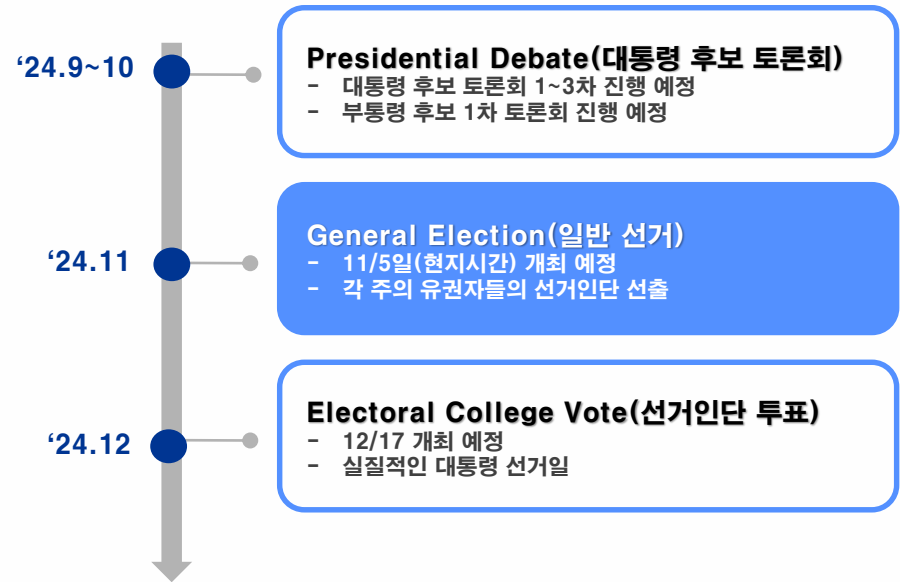
- 2024년 제 60번 째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가 11/5일(현지시간) 개최 예정.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는 '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
-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로 진행되며, 대선 진행 과정은 크게 경선과 본선으로 나뉘짐
- 경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선거를 위한 대의원 투표(프라이머리&코커스)와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통령 후보 투표인 전당대회가 진행
- 본선에서는 유권자가 각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일반 선거와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진행되는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인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
- 1~6월 프라이머리& 코커스, 7~8월 전당대회, 9~10월 대통령 후보 토론회, 11/5일 선거인단 투표, 12/17 선거인단 투표(대통령 투표) 순으로 예정

2024년 미국 대선 일정

경선



본선



제 60번 째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202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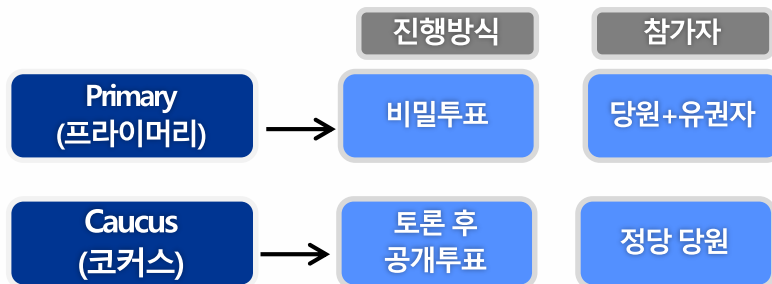
자료: 외신보도 참조, IBK투자증권

[경선] Primary & Caucus

2024년 미 대선 개요 및 향후 일정

- Primary(프라이머리)와 Caucus(코커스)는 미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참가할 주별 대의원을 선출하는 주별 당내 경선
- 해당 선거는 진행방식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임. 프라이머리는 당원을 비롯한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비밀 선거로 진행
- 코커스는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참가 가능한 당원대회이며 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
- 경선 극초반에 개최되는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는 전체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 16개 주의 경선이 한꺼번에 치뤄져 가장 많은 대의원들(34%)이 선출되는 슈퍼화요일(3/5)에는 전체 대의원단의 50%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음

프라이머리& 코커스 차이점



자료: IBK투자증권

2024년 미국 경선 일정

구분	날짜	내용	프라이머리&코커스 선출 대의원수
Primary & Caucus (프라이머리&코커스)	1.15	Iowa Caucus	40 (1.6%)
	1.23	New Hampshire Primary	22 (0.9%)
	2.08	Nevada	30 (1.2%)
	2.24	South Carolina	50 (2.1%)
	2.27	Michigan	16 (0.7%)
	3.02	Idaho, Michigan 등 3개주	125 (5.1%)
	3.1~3	Washington DC	19 (0.8%)
	3.04	North Dakota	29 (1.2%)
	3.05	Alabama, Alaska 등 16개 주(슈퍼화요일)	874 (36%)
	3.12	Georgia, Hawaii 등 4개주	161 (6.6%)
	3.15	Northern Mariana Islands	9 (0.4%)
	3.16	Guam	9 (0.4%)
	3.19	Arizona, Florida 등 5개주	350 (14.4%)
	3.23	Louisiana	47 (1.9%)
	4.02	New York, Wisconsin 등 5개주	195 (8%)
	4.18~20	Wyoming	29 (1.2%)
	4.21	Puerto Rico	23 (0.9%)
	4.23	Pennsylvania	67 (2.8%)
	5.07	Indiana	58 (2.4%)
	5.14	Maryland, Nebraska 등 3개주	105 (4.3%)
	5.21	Kentucky, Oregon	77 (3.2%)
	6.04	New Jersey, New Mexico 등 4개주	94 (3.9%)
National Convention (전당대회)	7.15~18	공화당 전당대회 (위스콘신주 밀워키 개최)	
	8.19~22	민주당 전당대회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최)	

자료: 현지 언론 정보 참조, IBK투자증권

[본선] 선거인단 제도

2024년 미 대선 개요 및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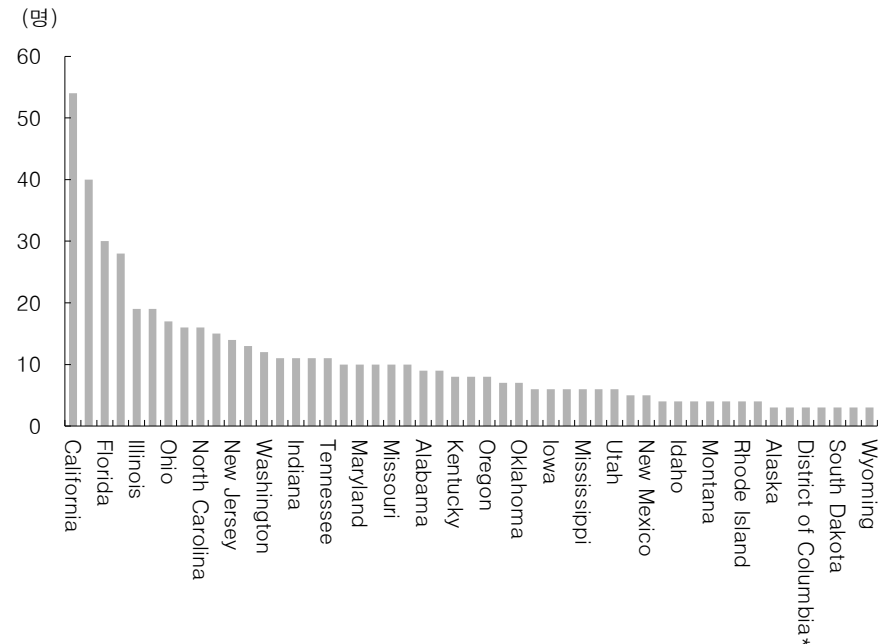
- 미 대선의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 미국은 대선에서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러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韓 유권자 → 대통령 후보 / 美 유권자 → 선거인단 → 대통령 후보)
-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상원 100명, 하원 435명,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획득해야 함
- 주(state)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지역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All) 방식 채택 (ex, 네브래스카, 메인)

미국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 개요

항목	내용
개요	- 유권자에 의해 뽑힌 각주를 대표하는 선거인으로부터 대통령을 투표
대통령 선출 방식	- 간접선거(유권자 → 선거인단 →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기준	- 정원 538명(상원 100명+하원 435명+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 - 각 주(state)는 자신들의 연방 하원 의원 수와 상원 의원수를 합친 수 만큼 선거인단을 할당 받음(인구수에 비례)
선거인단 배분 방법	- 승자 독식(Winner-take-all system),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의 표를 독식 - 네브래스카(Nebraska) 주와 메인(Maine)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시행 # 네브래스카주(5)와 메인주(4)는 주 권역&하원 의원 선거구 승자독식제 (statewide& congressional district winner-take-all system)를 방법 채택 # 2명의 선거인단은 주 권역 승자에게 할당되고, 각 하원 의원 선거구별 승자에게 1명의 선거인단을 할당하는 방식
선거인단 수 상위 주	캘리포니아(54), 텍사스(40), 플로리다(30), 뉴욕(28), 일리노이(19), 펜실베이니아(19), 오하이오(17), 조지아(16), 노스캐롤라이나(16), 미시간(15)

자료: IBK투자증권

주별 선거인단 배정 수



자료: britannica.com, IBK투자증권

美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의회 선거도 주목

2024년 미 대선 개요 및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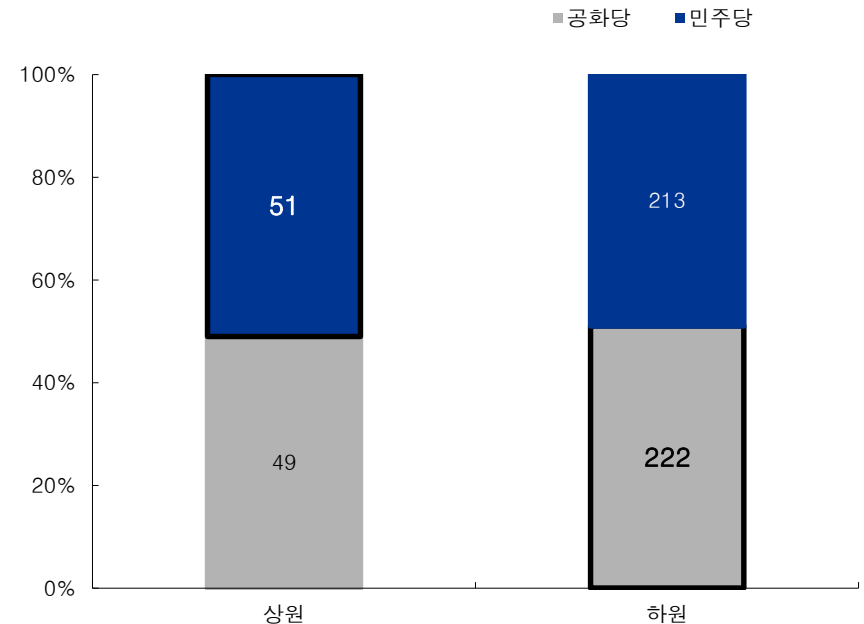
- 미 대선 당일(11/5)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제 119회 의회 선거도 같이 개최될 예정. 미 의회 선거는 2년 주기로 짝수 해 11월에 개최됨
- 상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2년 주기로 전체 의석 수(100석) 중 1/3인 33명을 선출. 올해는 보궐선거인 2명을 포함해 총 35명 의원 선출
-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으로 전체 435석 전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
- 상/하원 의회의 다수당 지위 변동 여부에 주목. 현재 미 의회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며 권력이 양분화된 상태
- 이에 정치력 권력이 균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올해 선거에서 의회 구조 변화 나타날 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미국 상원 하원 차이점

항목	상원(Senate)	하원(House)
선거 주기	2년 주기로 짝수 해 11월에 개최	
의장	카말라 해리스(현 부통령) *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도록 규정됨	마이크 존슨
현 다수당	민주당(민주당 5석 vs 공화당 49석)	공화당(민주당 213석 vs 공화당 222석)
의원 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의석 수 중 1/3 선출	2년
의원 수	100명	435명
의사 운영방식	소수 권리 강조	다수결주의 강조
고유권한	조약체결 동의권, 고위공직자 인준권	세입/세출 법안 발의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언론보도 참조, IBK투자증권

미국 제 118회 의회 상/하원 의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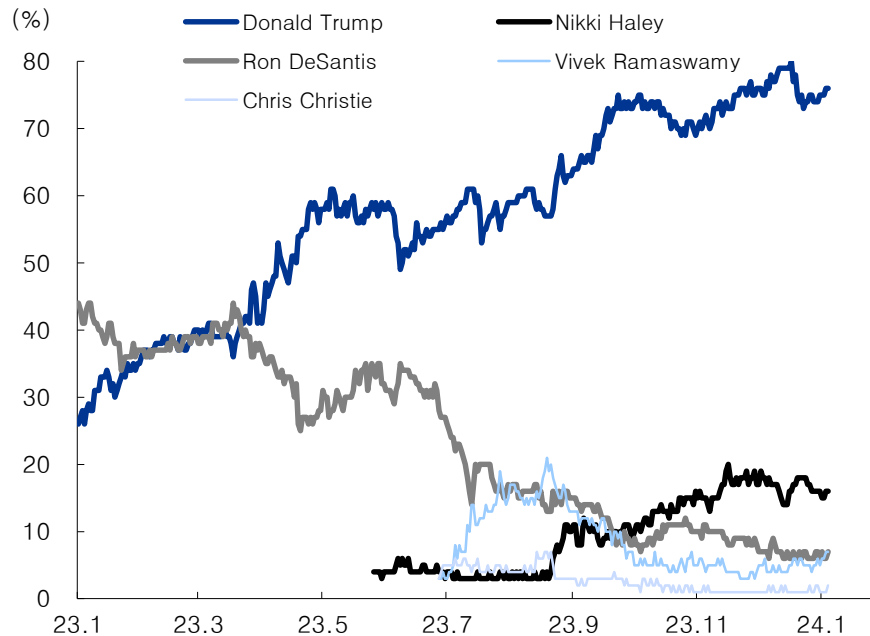
자료: 270toWin, IBK투자증권

공화당, 트럼프 외 5명 후보 경쟁중, 민주당, 바이든 독주

정당별 후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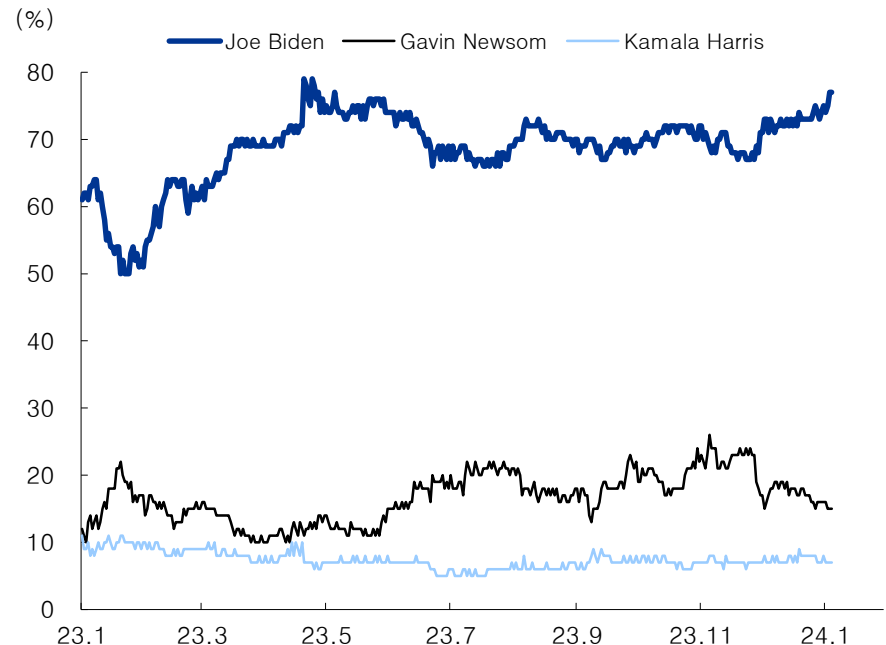
-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 5명 후보가 본석 진출권을 두고 경쟁 중
-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주 경쟁상대는 현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 후보와 전 미 유엔대사인 니키 헤일리 후보
- 기존 당내 2위였던 디샌티스 후보는 억만장자 후원자 후원 중단, 경선 토론회 성과 부재 등의 이유로 지지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
- 반면, 신보수주의 성향(서방과의 동맹 결속 지향 등)의 니키 헤일리는 극우 및 고립주의 지향하는 트럼프&디샌티스 후보와 대척점을 이루는 중도 및 온건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공화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서 2위 차지, 당내 '트럼프 대항마'로 급부상
- 한편, 현재로서 민주당에서는 재선을 도전하는 바이든 현 대통령 외 강력한 후보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공화당 후보 지지율. 트럼프 vs 헤일리 or 디샌티스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민주당 후보 지지율. 홀로 독주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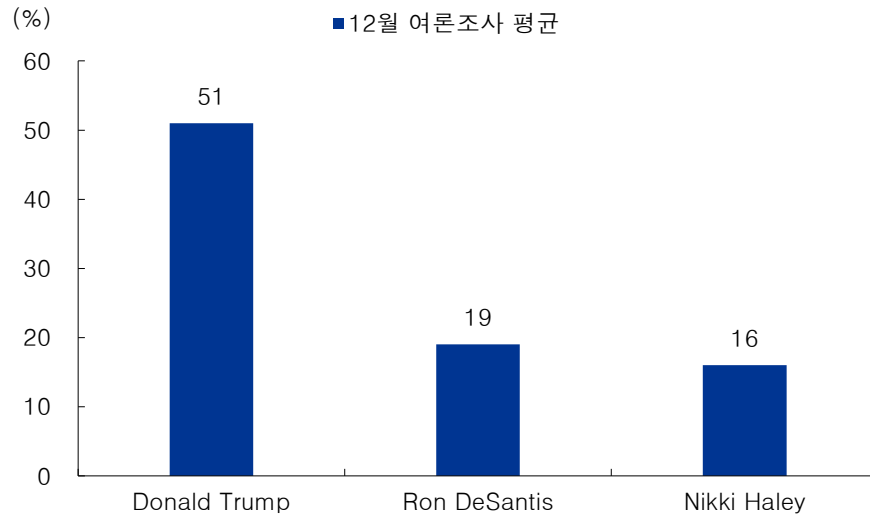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경선 풍향계,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승기를 잡는 건 누구?

정당별 후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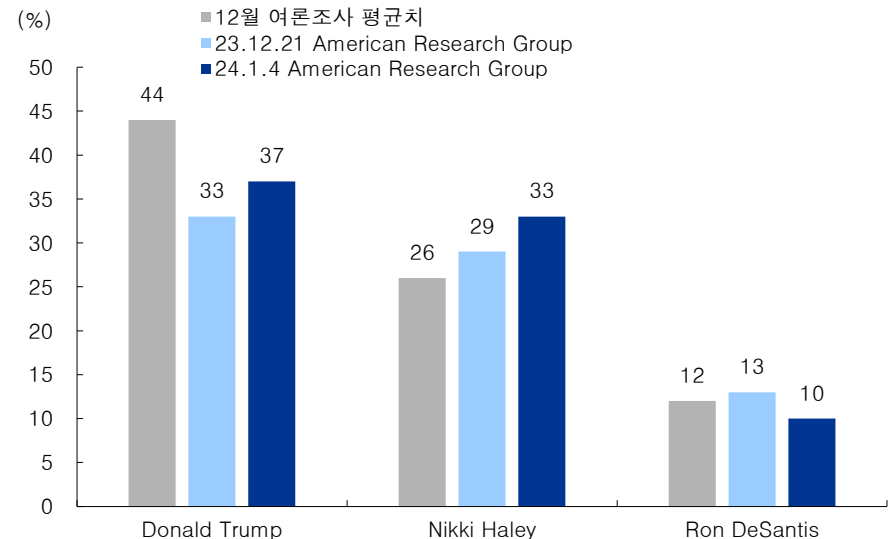
- 첫번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지역인 아이오와주(1/15)와 뉴햄프셔주(1/23)에서 '트럼프 대항마' 탄생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최종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 높음
- 여론조사 기관 별 차이는 존재하나, 전체 평균 수치를 고려 시 1-2위 후보간 지지율 격차 상당
- 아이오와주 평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1위 트럼프 후보(51%)와 2위 디샌티스 후보(19%)간 지지율 격차는 32%p
- 뉴햄프셔주의 경우, 최근 American Research가 트럼프-헤일리 격차는 4%p라 밝혔으나, 12월 전체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양 후보간 격차는 18%p
-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던 해에 뉴햄프셔에서는 2위에 그쳤다는 점을 미뤄볼 때 '풍향계'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
- 예상외로 트럼프 후보가 탈락한다해도 뉴햄프셔의 대의원수는 전체 대의원단의 1%도 되지 않아 전체 경선 분위기를 결정짓지는 못할 것

아이오와주 공화당 후보 지지율. 트럼프, 2위 후보와 격차 30%p 이상



자료: 270toWin,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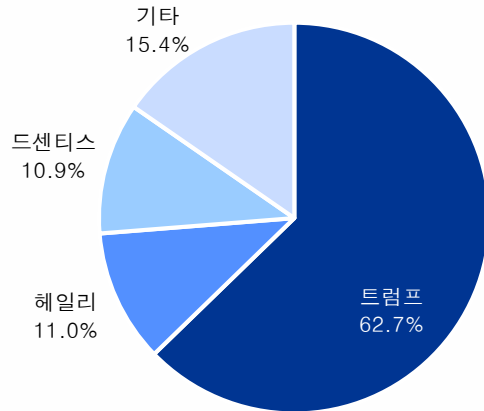
뉴햄프셔주공화당 후보 평균 지지율. 트럼프, 2위 후보와 격차 1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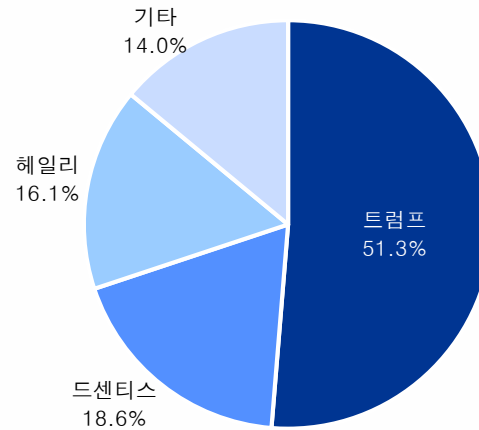
자료: 270toWin, IBK투자증권

Upcoming Primaries and Cauc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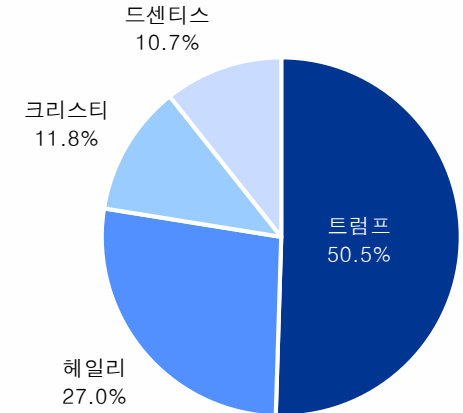
공화당 경선 후보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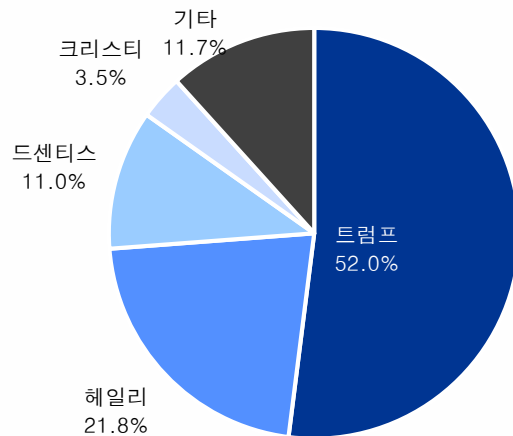
아이오와 공화당 후보 지지율. 아이오와 코커스(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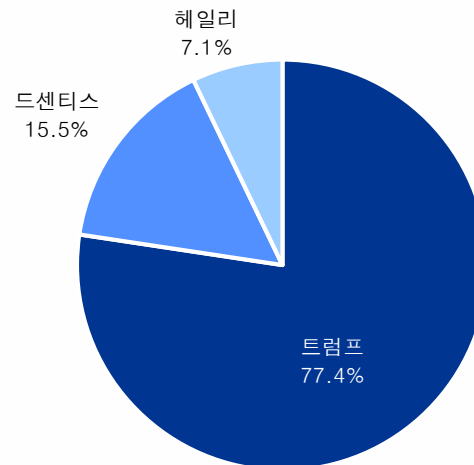
뉴햄프셔 공화당 후보 지지율. 뉴햄프셔 프라이머리(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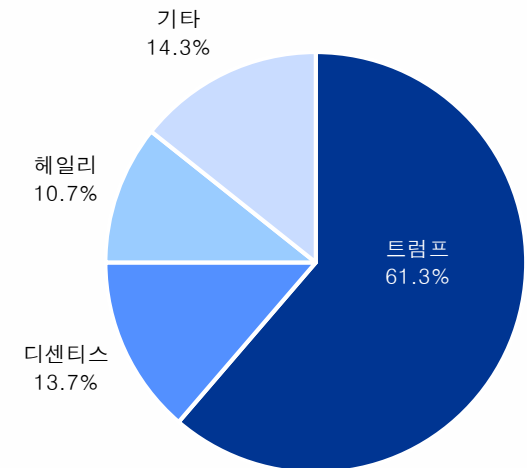
사우스캐롤라이나 후보 지지율. 프라이머리(2/24)



네바다 공화당 후보 지지율. 네바다 코커스(2/8)



미시간 공화당 후보 지지율. 미시간 프라이머리(2/27)



자료: 270toWin, IBK투자증권
주: 주별 최신 데이터 기준은 상이

What's different?

트럼프노믹스 2.0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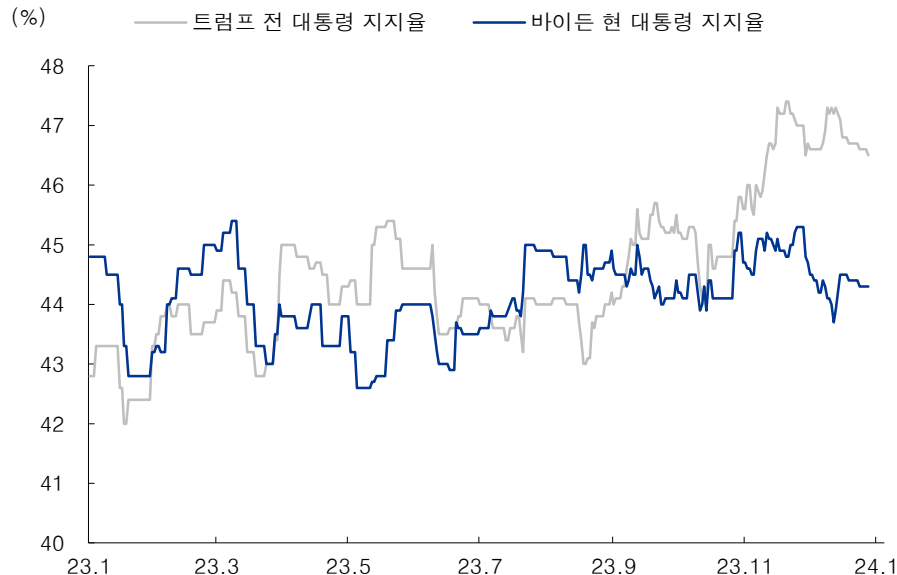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재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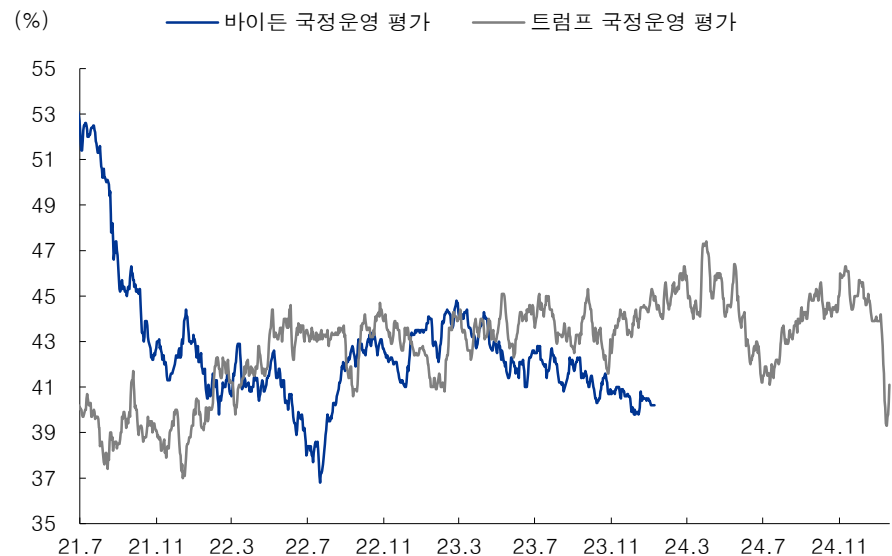
- 본선 레이스 시작 전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경선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하나, 현재로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이 지배적
-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재대결 성사될 경우,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뚜렷한 승리의 윤곽은 대선 직전에 가셔야 알 수 있을 것
- 통상적으로 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현직 이점(incumbency advantage)' 효과로 인해 대선 자금 모음 능력, 선거 자원 활용 등에서 우위를 보이며 현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짐
-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으며, 지지세력이 견고한 만큼 금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현직 이점 효과 부재할 수 있음
- 경기 지표 개선, '23년 전 세계 경제 회복 주도 등의 성과에도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모습
-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이전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의 수치를 이미 크게 하회하고 있음

2024 대통령 후보 지지율 추이. 현 대통령의 '현직 이점' 효과 부재



자료: Real Clear Politics, IBK투자증권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역사상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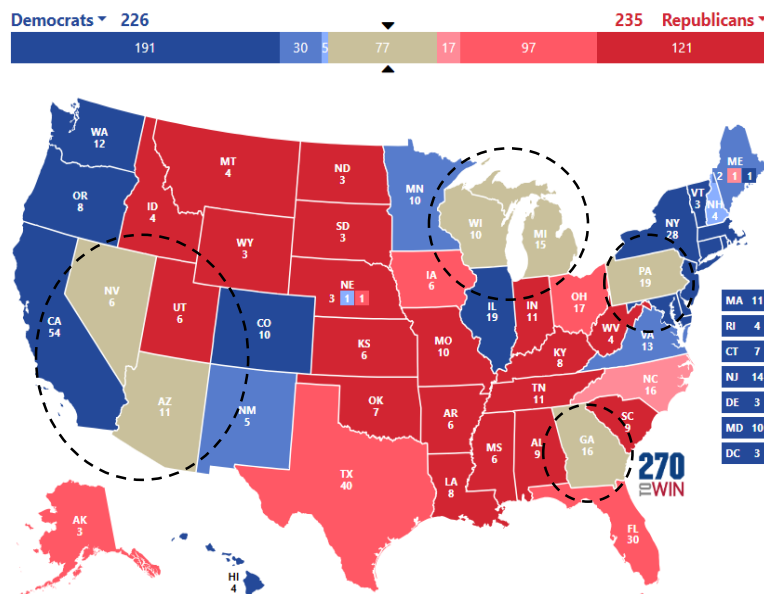
자료: Real Clear Politics, IBK투자증권

대선의 판세는 경합주 승리가 결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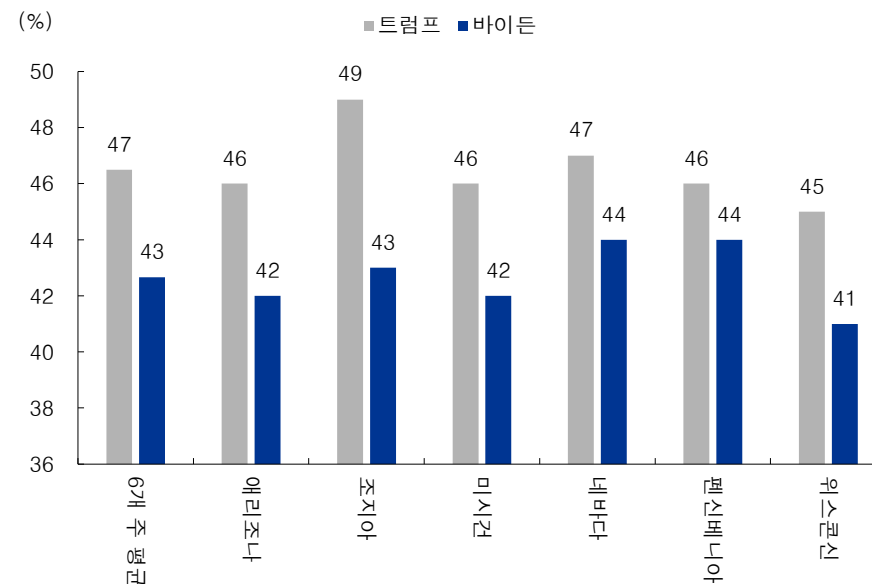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재대결

- 2024년 대선에 승리하게 위해서는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함
- 현지 조사기관의 '24년 미 대선 주별 선거인단 전망에 따르면, 공화당(235명)이 민주당(226명)을 앞서고 있으나, 과반수를 넘지 못한 상태
- 양당 모두 추가적 선거인단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양당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6개 경합주(toss-up states)에서의 선거인단 확보가 중요할 것
-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19), 조지아(16), 미시건(15), 애리조나(11), 위스콘신(10), 네바다(6)로 총 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까지 경합주 여론에서는 '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승리했던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음
- 양 후보간 평균 지지율 격차는 4%p 정도

미국 2024년 주별 선거인단 확보 전망치와 6개 경합주



경합주 바이든-트럼프 평균 지지율 격차 4%p



자료: 270toWin, IBK투자증권

주: AZ-애리조나, GA-조지아, NV-네바다, WI-위스콘신, MI-미시건, PA-펜실베이니아

자료: Bloomberg(12.14), IBK투자증권

-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경선 기간 중 향후 선거 여론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리스크가 존재
- ‘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조지아주 선거 개표 방해, 성추문 무마 의혹, 기밀문서 유출 조사 방해 혐의 등 4건의 형사 사건에 기소된 상황
-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개입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의하는 2/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최종판결에 주목
- 관련 혐의로 총 34개 주에서 출마 자격 박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콜로라도와 메인 주는 트럼프 후보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상태
-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보수파 6/9명)이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
- 지난해부터 이슈화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경선 출마권이 박탈된 콜로라도와 메인 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진영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법리스크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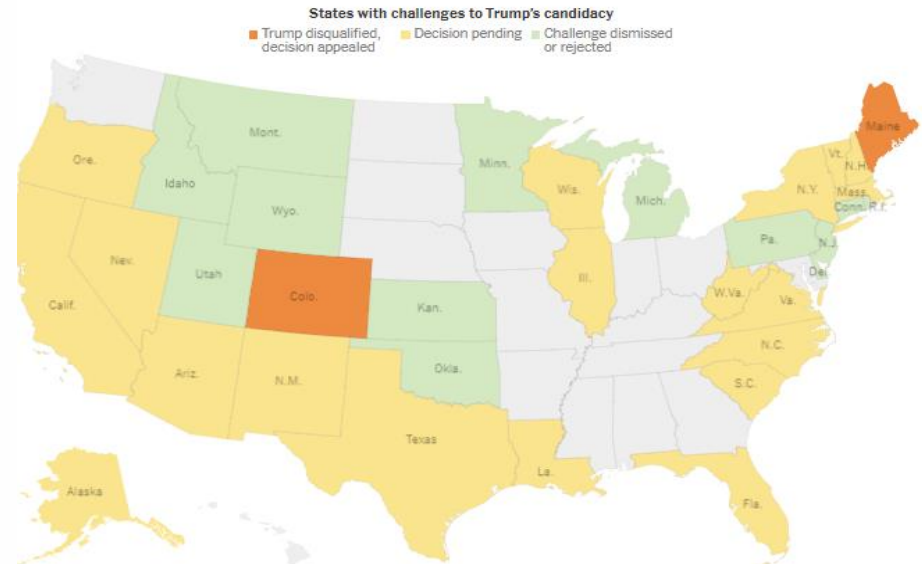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기소 현황

형사 사건	범죄 혐의	관할 법원	사면권 보유	최대 형량	재판 일정
연방 선거 방해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첫 심리	--	--	--	24.02.08
조지아주 선거 개입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공무원 회유, 문서 위조 등 13건	조지아주 법원	주 정부 사면위원회	76.5년	24.02.15
연방 선거 방해	선거 공무 방해 관련 중범죄 혐의 4건(국가 기만과 권리 행사 방해 등)	연방법원 (워싱턴 D.C.)	대통령	55년	24.03.04
성 추문 무마	회계 조작, 선거 자금법 위반 등 34건	뉴욕주 법원	뉴욕 주지사	136년	24.03.25
기밀문서 유출	기밀문서 유출, 반납 지연 및 공무 방해 등 40건	연방법원 (플로리다)	대통령	76.5년	24.05.20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참조, kotra, IBK투자증권

주: 수정헌법 14소 3항은 “헌법 수호를 서약한 공직자가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가담하는 경우 연방 또는 주 정부의공직 참여를 금지한다” 라고 규정

트럼프 후보 대선 출마 박탈 소송 주 현황(기각 13개, 미결 19개, 박탈 2개)



자료: The New York Times, IBK투자증권

미리보는 바이든노믹스 2기 vs 트럼프노믹스 2기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재대결

- 재대결 성사 가능성 높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공약은 최종후보가 결정되는 전당대회(7~8월) 이후 가시화될 것
- 다만, 두 후보가 제시한 2기 국정(國政) 구호를 미뤄볼 때 지난 1기의 정책 방향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음
- 금번 대선 슬로건으로 바이든 후보는 Finish the Job(하던 일을 끝내자), 트럼프 후보는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을 제시

바이노믹스 2기 vs 트럼프노믹스 2기 예상 공약

구분	Biden	Trump
정책 기초	- 경제 불균형 해소를 통한 안정적 성장	- 자국 위주의 고성장
슬로건	'20년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 <u>Finish the Job(하던 일을 끝내자)</u>	'20년 Make Amreica Great → <u>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u>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연준 독립성 보장	통화 완화를 위한 연준에 압력 강화
조세정책	- 법인세율 인상/부자 증세	법인세율 인하/부자 증세 반대
대중정책	-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 - 중국과의 무역 거래는 지속하나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 관련 중국발(發) 위험 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디리스크잉 (derisking) 집중	- 고강도 탈 중국 정책 시사 -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까지 중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PNTR) 박탈
무역정책	-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지향 - 관세보다 간접 제재 선호	- 보호무역주의 지향 - 미국우선 대외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의 재활성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 - 대미 흑자국에 직접적인 고율 관세 부과,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산업정책	- 미국내 공급망 확충/보조금 확대	리쇼어링 정책 추진
기후정책	-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친환경 보조금 축소(IRA 정책 폐지), 원유 시추 장려
보건/복지	- 오바마 케어 지속	- 약가 인하, 국내 보건 공급망 재건, 오바마 케어 폐지 - 출산 보너스, 자동차 구매, 비용 절감 등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지원 공약
인프라	- 인프라 투자 확대 예상	- 신도시 건설, 노후화 도심 재개발, 등 대대적인 토건 사업 추진 계획 - 교통/운송 혁신, 항공 모빌리티 기술로 신산업 및 교통수단 대전환 실현
외교/안보	-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 자체	러-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미 국방력 증진
이민	- 모든 인증 아우르는 방향 정책 변화 필요성 피력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중단

자료: 국내외 언론보도 참조, IBK투자증권

[트럼프 2.0] 강력해진 America First Policy

트럼프노믹스 2.0

- 트럼프의 경우 이미 대선 2년 전부터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 다수의 공약 발표했기 때문에 집권 2기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
- 집권 1기와 차별화된 트럼프노믹스 2.0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
- 트럼프 후보는 재선 공약으로 'Agenda 47'을 제시하며 집권 1기보다 더욱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 정책을 예고
- 'Agenda 47'는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무역, 외교, 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자국 이익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
-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드라마틱한 정책 기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대외 통상&대중전략, 외교안보, 에너지 산업

트럼프노믹스 2.0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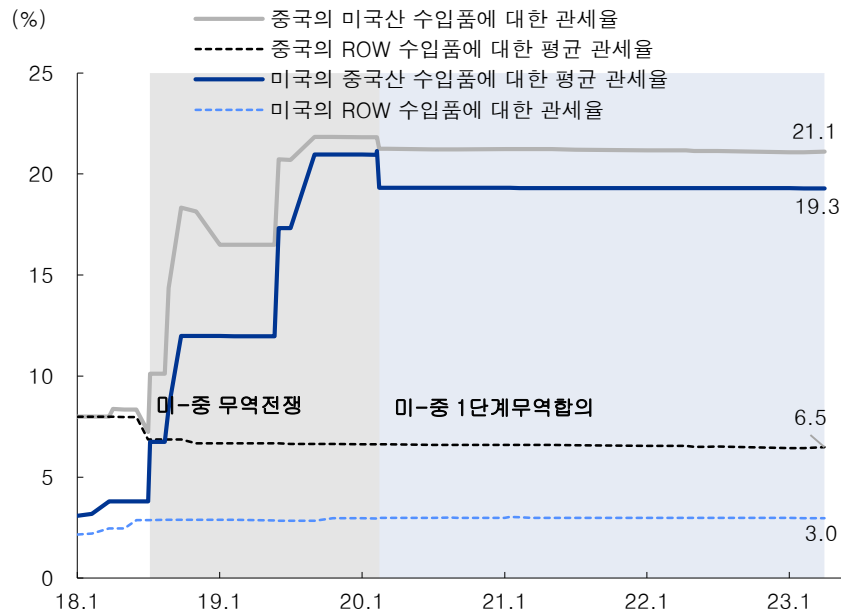
항목		내용
대외 통상 & 대중전략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강화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 미국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기존 무역 협정 재협상, 대중 규제 등 강화
	'트럼프 상호무역 (Trump Reciprocal Trade Act) 입법 공약	- 법안 제정 시 미국-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기계적으로 평등화 - 미국이 해당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미국 수출에 적용 하도록 외국과 협상 - 합의 불발 시 상응하는 고율 관세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화 - 전 세계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제도 도입 (*전 세계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율을 추가 적용, 일부 핵심 필수 품목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도입 검토)
	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중국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 고율의 대중 관세 체계 신설 계획 - 중국의 제3국으로 통한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수립 -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 투자 금지 및 매각 종용 -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핵심광물 포함)하는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
	다자간 협약 정책 폐지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즉시 폐기
외교& 안보		-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투입된 예산 2,000억 달러를 EU에 배상 요구를 통해 미국의 고갈된 국방력을 재건 -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즉시 종결 공언
에너지/환경		- 에너지부 등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중단, 각종 환경 명목의 비시장적 규제 철폐 - 바이든 정부 전기차 의무 생산 정책 전면 백지화(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 국내 자동차 제조업 활성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제도 중단 - 셰일, 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 지원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중흥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경제 성장, 고용 창출 견인 주장 -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그린뉴딜 일체 중단

자료: KOTRA, 국내외 언론 참조, IBK투자증권

[트럼프 2.0] 통상&대중전략, 미-중 관세전쟁 2차전 발발할 것인가...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다수의 공약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강경한 기조를 내비친 것은 통상&대중 정책
- 트럼프 후보는 무역적자가 미 경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 적자해소를 위해 관세, 기존 무역 협정 재협상, 대중 규제 등의 강화를 예고
- 이에 트럼프 당선 시 집권 2기에서는 대중 규제 더욱 강화되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미-중 관세전쟁 2차전 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적용과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 박탈 예고한 점
- 전자는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환율 조작 시도, 불공정 무역 관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10% 추가 징벌적 세율 적용하는 법안, 후자는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를 취소하고, 고율의 대중 관세 체계 신설 내용을 담고 있음

여전히 진행중인 미-중 고율 관세제도



자료: PIIE, IBK투자증권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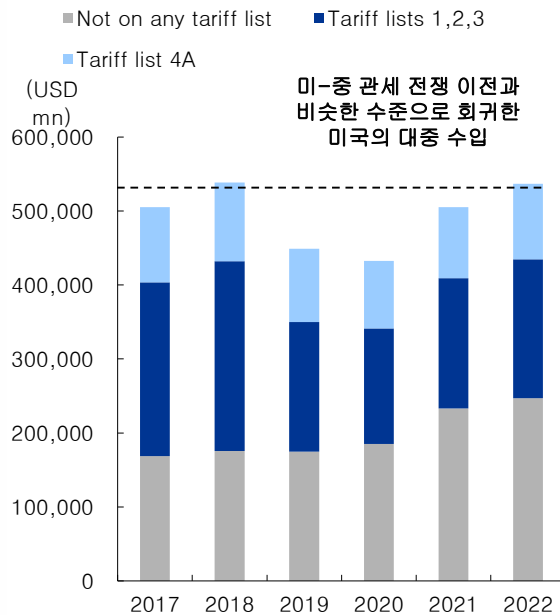
날짜	내용
2018.03	2,200여 개 中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
2020.01	관세 적용 대상 549개 품목으로 축소
2022.03	352개 품목에 한시적 관세 예외 조치
2022.12	관세 예외 만료 기간 9개월 연장
2023.09	관세 예외 만료 기간 연말까지 연장
2024.12	관세 예외 만료 기간 '24.05까지 연장

자료: 언론보도 정리, IBK투자증권

[트럼프 2.0] 통상&대중전략, 미-중 관세전쟁 2차전 발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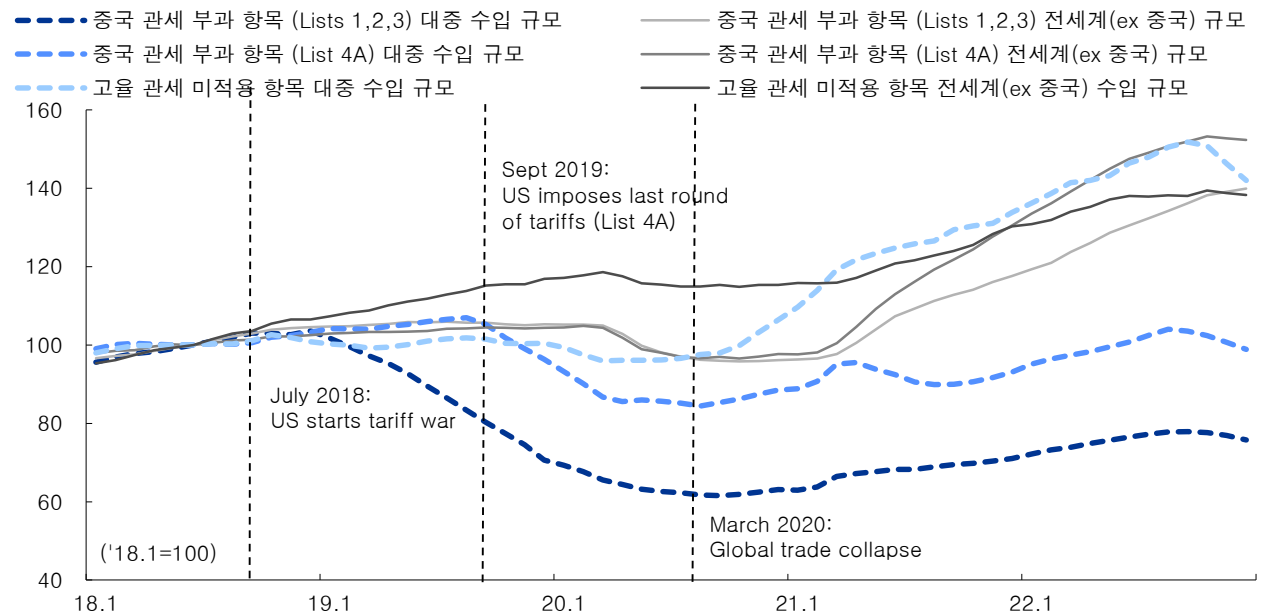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
- 대중 고율 관세 적용 이후에도 비관세 품목 중심으로 대중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국의 전체 대중국 수입 규모는 미-중 관세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22년말 기준)
- 미 정부는 무역법 301조 내용을 도태로 대중국 수입 품목에 따라 차등적 세율 적용 중이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하고 있음
- List 1(반도체, 기계 등), List 2 (자동차, 관련 부품 등), List 3(농축산물, 화장품, 등) 제품에는 25%, List 4A(의류, 신발) 제품은 7.5% 관세 적용
- 트럼프가 재선 승리할 시,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위해 기존 항목에 대한 세율 인상 및 비과세 항목에 대한 신규 관세 적용 조치 단행할 가능성 존재

미 대중 수입은 비관세 제품 중심으로 상승



자료: PIIE, IBK투자증권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중국 고율 관세 적용/미적용 제품 수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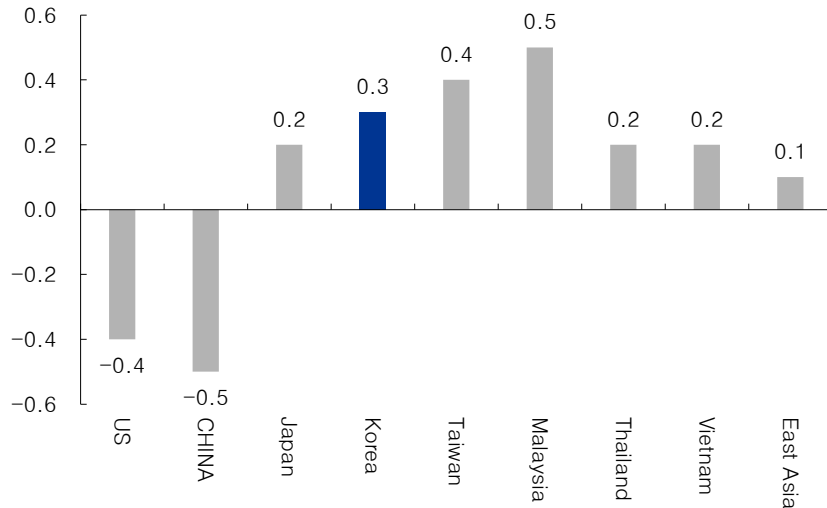
자료: PIIE, IBK투자증권

[트럼프 2.0] 트럼프 통상 정책 현실화 될 시 전 세계 경기 성장 둔화 예상

- 트럼프의 통상 정책 현실화 될 시 전세계 경기 성장 둔화될 것이며, 과거 미-중 무역전쟁 때보다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 클 것으로 예상
- 보편적 기본관세 정책은 불공정무역 의혹이 있는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 대미 교역 크거나, 미 환율조작/관찰국 경험 있는 국가 모두 안전하지 않을 것
- '23년 한국은 미 정부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됐으나, '16년부터 꾸준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온 만큼 안심할 수 없음
- 트럼프 2.0 시대의 무역분쟁은 미국-중국에서 미국-전세계 구도로 확대되며, 대미 수출이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 일본 IDE Research 연구기관에 따르면, 과거 미-중 무역분쟁 당시 한국은 중국 경제 둔화에 영향을 받으나,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요 확대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 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전세계 무역분쟁 시나리오에서는 기업이익 악화, 중국 수요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3.8%p 둔화될 것으로 분석

US-China Trade War "Worst-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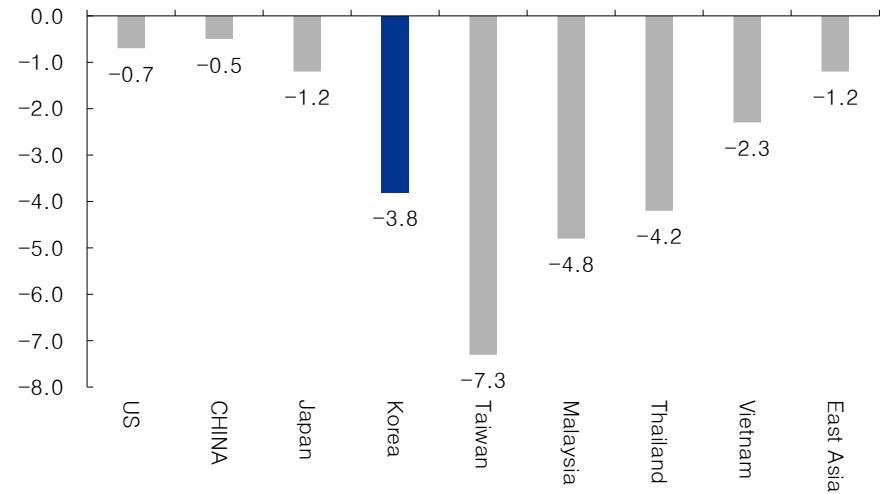
(% of GDP)



자료: Authors' own illustration based on Kumagai et al. (2021), IDE Research, IBK투자증권
주: 2021, % of Baseline GDP

Impact of "The US vs. The World" Trade War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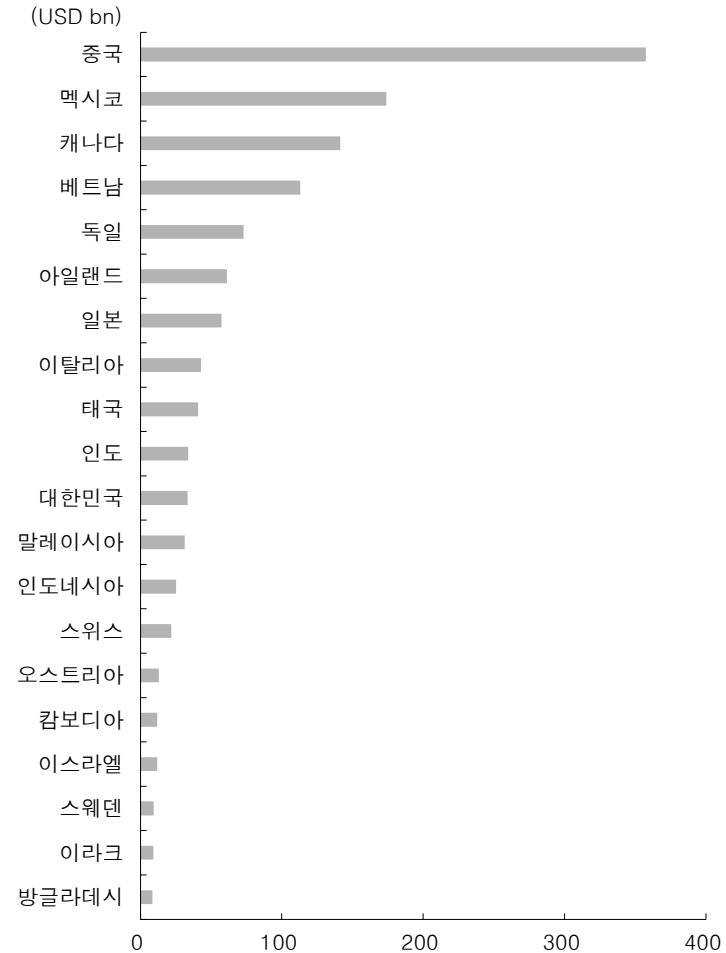
자료: Authors' own illustration based on Kumagai et al. (2021), IDE Research, IBK투자증권
주: 2021, % of Baseline GDP

[트럼프 2.0] 트럼프 통상 정책 현실화 될 시 전 세계 경기 성장 둔화 예상

한국 2016년 7년 만에 미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요건	외환시장 개입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USD bn)	기준 충족 수
세부기준	GDP 대비 2% 이상,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GDP 대비 3% 이상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독일	N	5.1	85.0	2
대만	N	11.8	48.0	2
베트남	N	4.7	105.0	2
말레이시아	N	3.3	31.0	2
중국	N	2.2	294.0	1
싱가포르	N	18.3	-33.0	1
캐나다	N	-1.0	39.0	1
멕시코	N	-1.1	145.0	1
일본	N	2.1	65.0	1
한국	N	0.5	38.0	1
아일랜드	N	10.5	3.0	1
인도	N	-1.7	47.0	1
스위스	N	9.8	-4.0	1
네덜란드	N	9.6	-58.0	1
프랑스	N	-1.9	17.0	1
이탈리아	N	-1.1	46.0	1
태국	N	-1.4	42.0	1
영국	N	-1.9	-21.0	0
브라질	N	-2.6	-28.0	0
호주	N	1.2	-29.0	0
벨기에	N	-1.7	-14.0	0

대미 무역 흑자 국가 및 규모



자료: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2023.11),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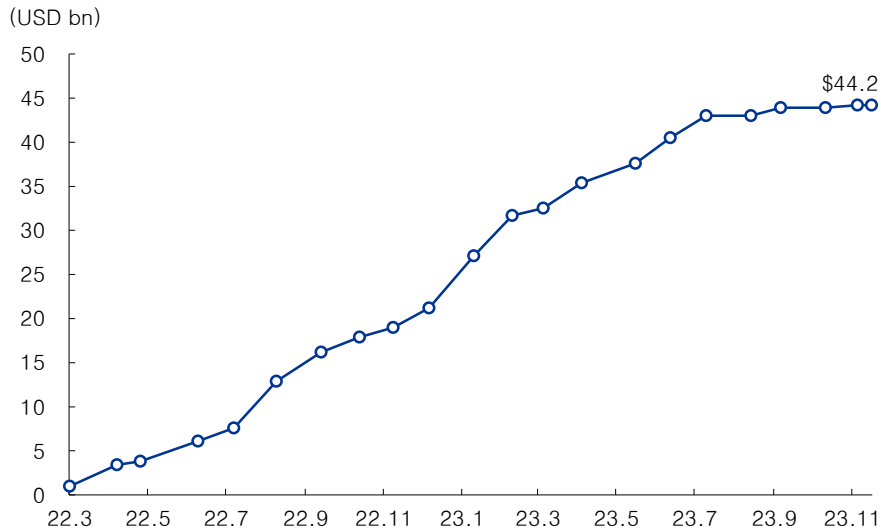
주: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두 개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최소 2회 보고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트럼프 2.0] 국방력 강화 & 전통 에너지 산업 중흥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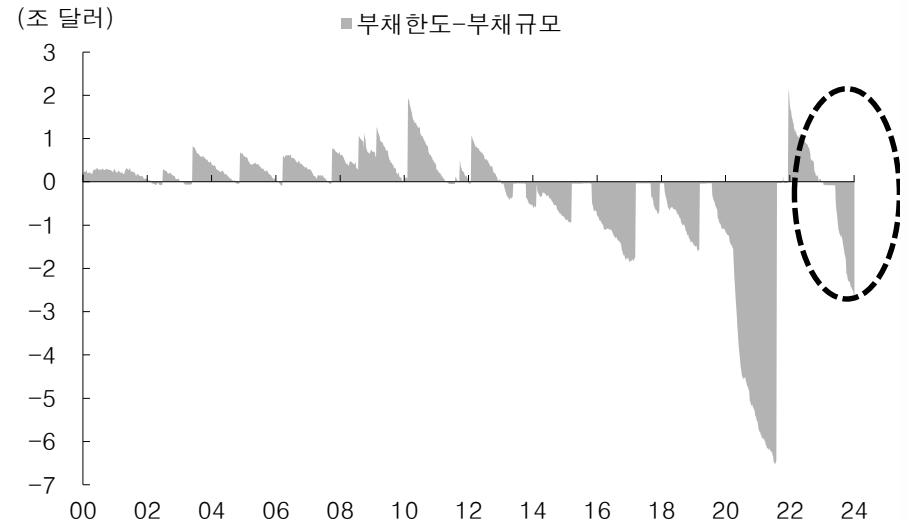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국 국방력 강화를 예고
- 또한, 취임 후 러-우 사태 즉시 종결 약속과 EU에 대한 전쟁 지원금 2,000억 달러 배상 요구를 통해 고갈된 미 국방력의 재고 계획을 밝힘
- 이는 미 막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으로 높아졌던 미 연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한편,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조는 현 바이든 행정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후보는 향후 현 정권에서 그간 소외됐던 전통 에너지 산업의 중흥을, 바이든 행정부 핵심 산업인 그린에너지 정책의 쇠퇴를 예고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천연가스 시추 및 개발 등 전통 에너지 산업에 정부 지원 총동원하는 반면, 전기차 전환 정책 중단, IRA 보조금 제도 중단,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등 바이든 정부 그린뉴딜 정책 백지화할 것이라고 발표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미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료: 미국 국방부, IBK투자증권

미 정부 채무 부담을 가중(FY23 재정지출 중 국방비 비중 전망치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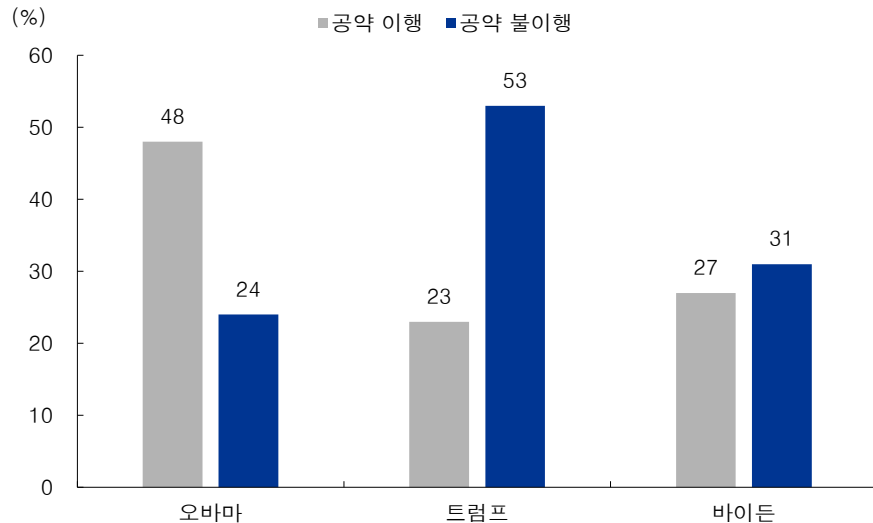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트럼프 2.0] 다만, 정책 실현 가능성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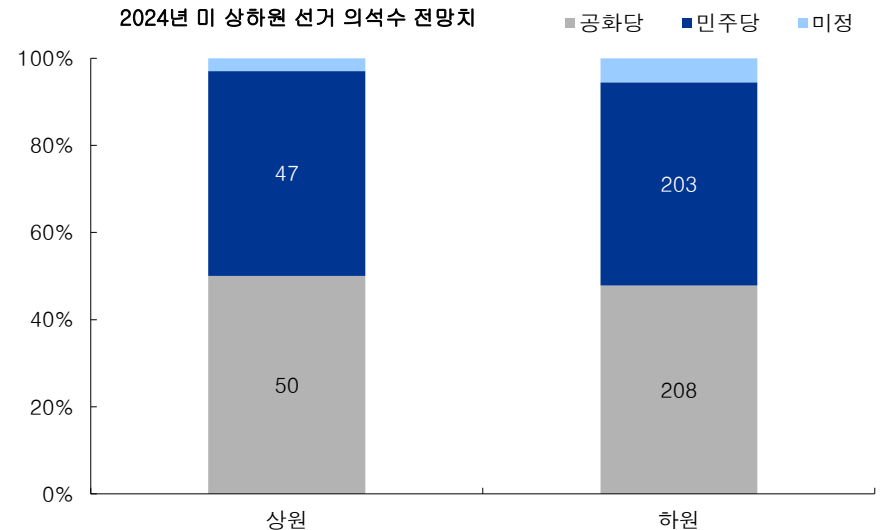
-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국제 경제 및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이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 트럼프의 임기 당시의 공약 이행률은 다른 대통령 대비 현저히 낮음. 이는 공약이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 난이도가 쉽지 않기 때문
- 이전 임기 시절 트럼프는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오바마케어 폐지도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이행에 실패한 바 있음
- IRA는 국가 장기 발전 계획 수정을 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마땅한 대안책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해당 공약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
- 트럼프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하반기 미 대선과 같이 실행되는 미 상하원 의회 결과도 중요. 선거 결과 확인 후 공약 실현 가능성 재점검 필요
- 만약 의회 선거에서 Red Wave(공화당 상하원 모두 승리) 불발 시 트럼프의 정책은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받기 쉽지 않아 정책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음. 현재 미 상하원 선거 의석수 예측치에서는 양당 모두 상하원에서 점점인 상황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 상대적은 낮아...



자료: Politifact, IBK투자증권

하반기미의회선거서RedWave없으면정책실행가능성은더욱낮아짐



자료: 270toWin, IBK투자증권

Stock Market

Trump vs Biden 재대결 시 증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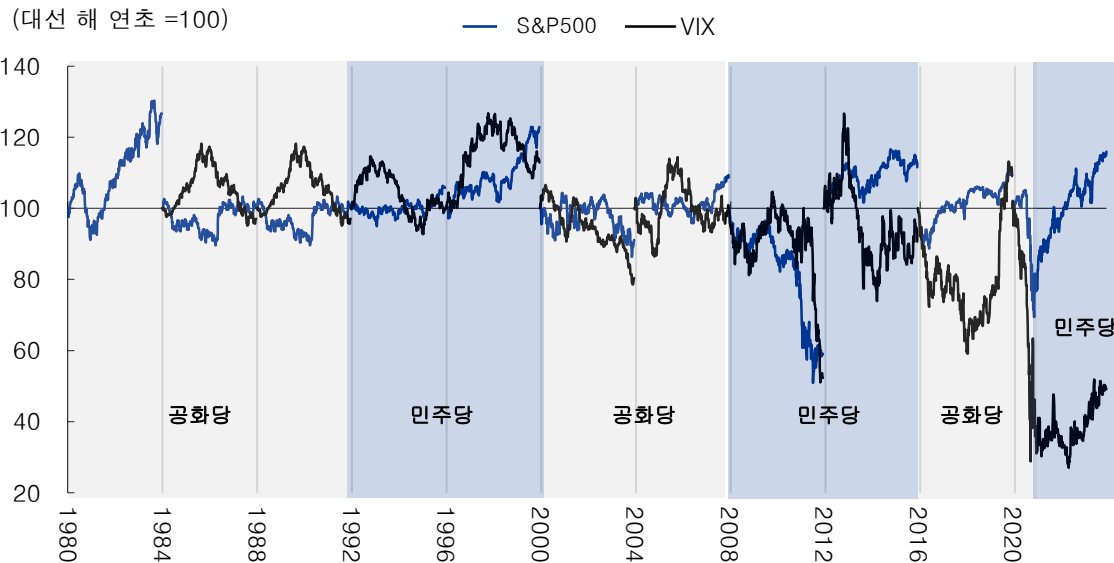


미 대선 이벤트는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켜...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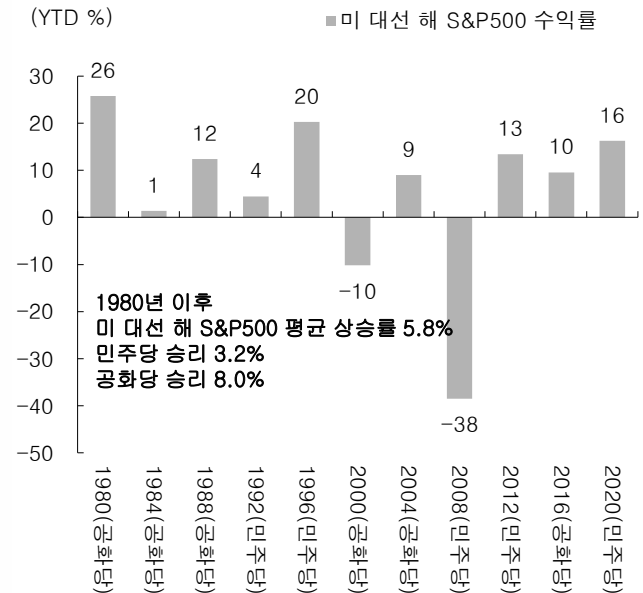
- 과거 역사를 보면 시장은 미 대선 이벤트를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
- 1980년 이후 미 대선 해의 S&P500은 연간 평균 5.8% 상승하며 양호해 보이나, 연간 추세를 살펴보면 변동성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음
- VIX 지수는 미 대선 해에 가파른 등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 산업,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
- 아울러, 승리 정당에 따른 증시 상승 효과도 크게 연관성을 보이는 것 같지 않음
- 일반적으로 민주당보다 기업 친화적 성향을 갖는 공화당의 대선 승리가 증시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민주당 승리 해가 다른 공화당 승리 해를 아웃퍼폼하는 한 시기도 존재한다는 점을 미뤄봐 항상 통용되는 법칙은 아님

과거 미국 대선 개최되던 해의 S&P500 지수와 변동성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정당 색채는 증시 상승과 연관성이 낮아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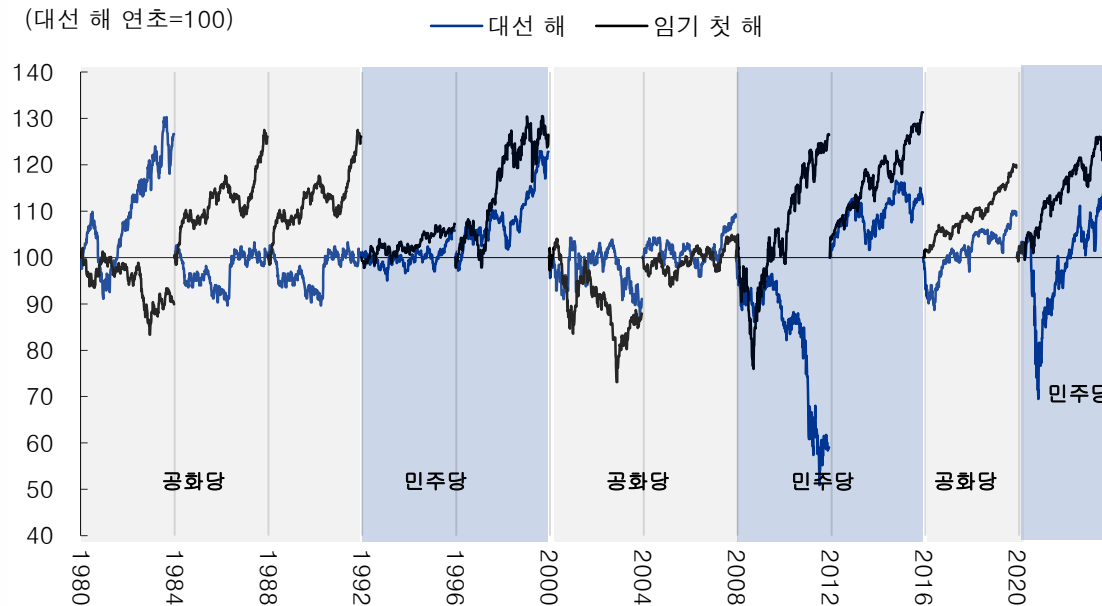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이벤트에 따른 증시 부양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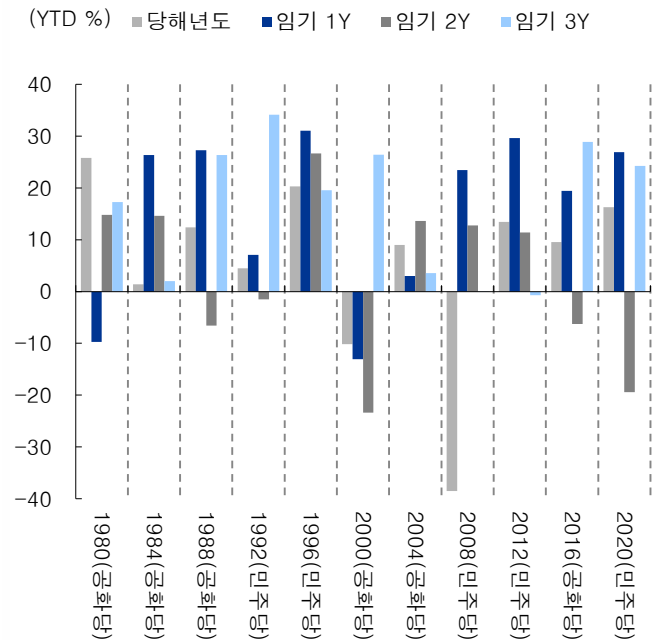
- 미 대선 이벤트 효과는 대선 개최 해보다 신정부가 출범하는 임기 첫 해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미 대선 차기 해의 증시 수익률이 대선 해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하는 경향
-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평균적으로 임기 3년차. 중간선거 불확실성 해소, 2년후 대선 대비한 정부의 정책 강화에 기인
- S&P500 상승 확률과 평균 상승률 : 대선 해 81.8%, 5.8% vs 임기 첫 해(대선 다음 해) 81.8%, 15.6%. 임기 3년차 81.8%, 16.5%
- 이는 대통령 취임 후 공약 이행을 위해 나타나는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로 인한 투자 중심의 경기 성장 기대감이 증시를 부양하기 때문

과거 미국 대선 해와 신정부 임기 첫해 S&P500 지수 추이 비교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 대선 해 및 임기 연차 별 S&P500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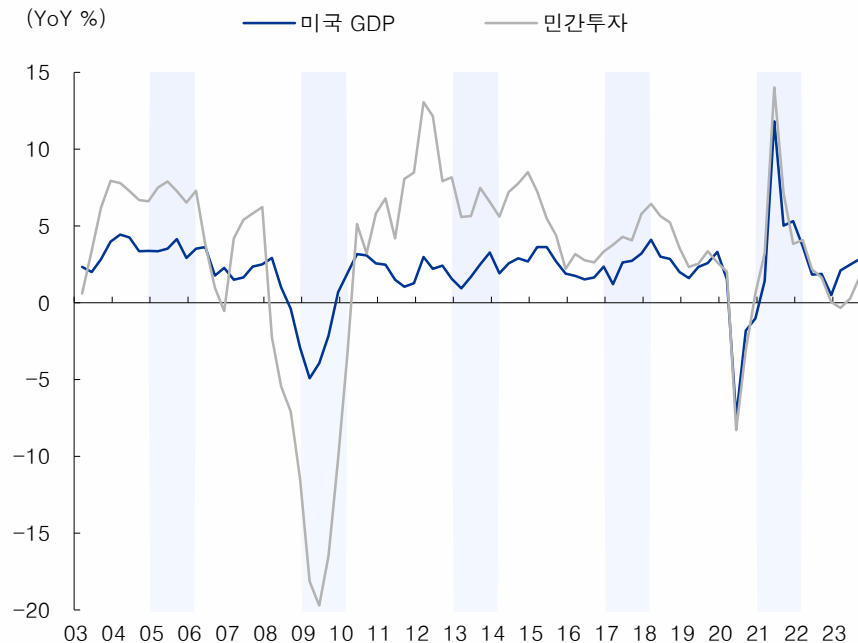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주: 연간 수익률 기준

대통령 임기 초반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는 美 경제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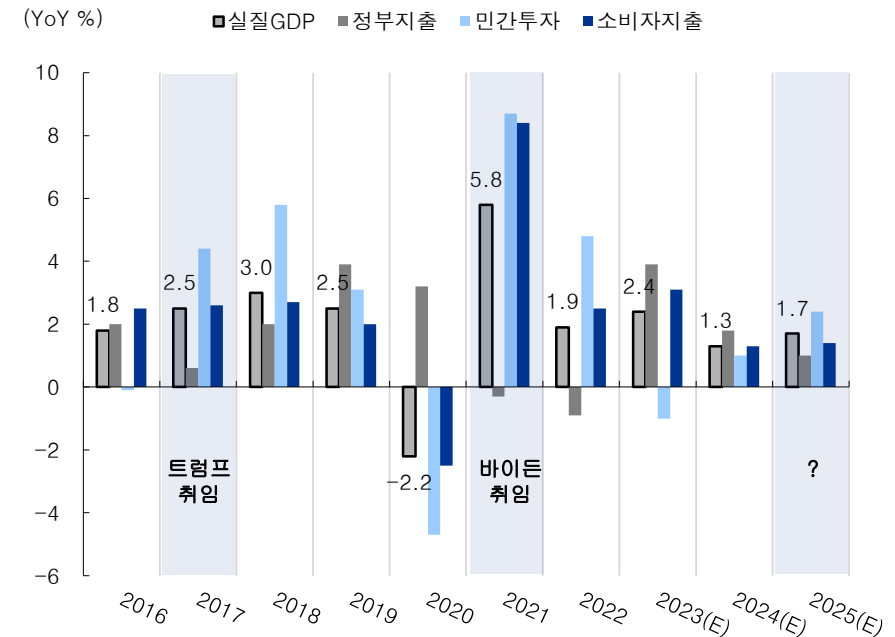
-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 대선 차기 년도에는 신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효과로 인해 투자 부문이 미 경제 성장을 주도
- 가장 최근 사례인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과 2021년에도 이러한 정책 효과 반영된 모습
- 올해 연말부터 차기 행정부의 정책 지원 수혜 기대감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확대가 필요한 이유
- 차기 대통령이 임기 첫 해인 2025년도 민간 중심의 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Bloomberg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5년 미국 GDP는 1.7%, 민간투자 2.4% 성장 전망

대통령 임기 초반에 민간 투자 확대되며 GDP를 끌어올림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주: 미국 대통령 임기 첫해를 표시

신정부 출범되는 내년도 민간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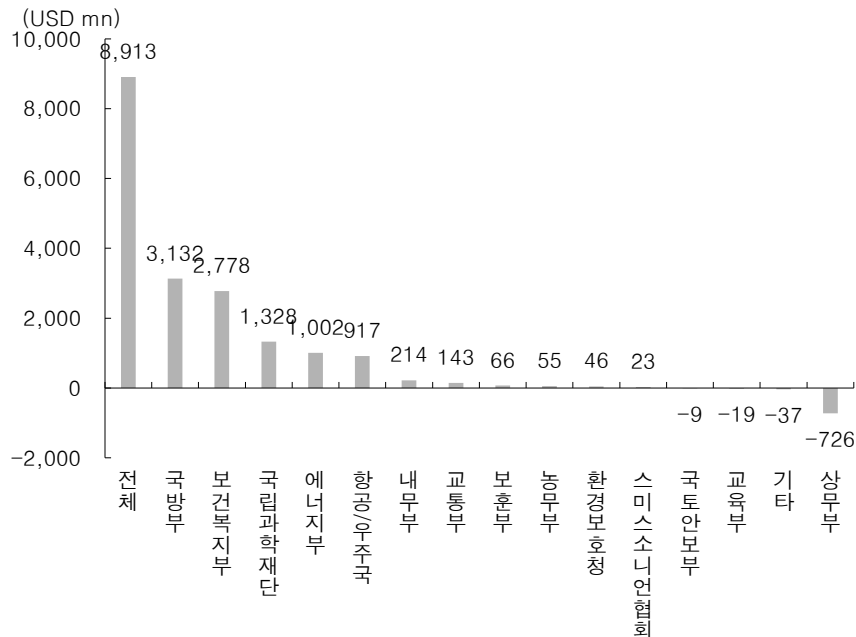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올해 정당에 따른 정책 수혜주 양극화 현상 제한적일 것

Stock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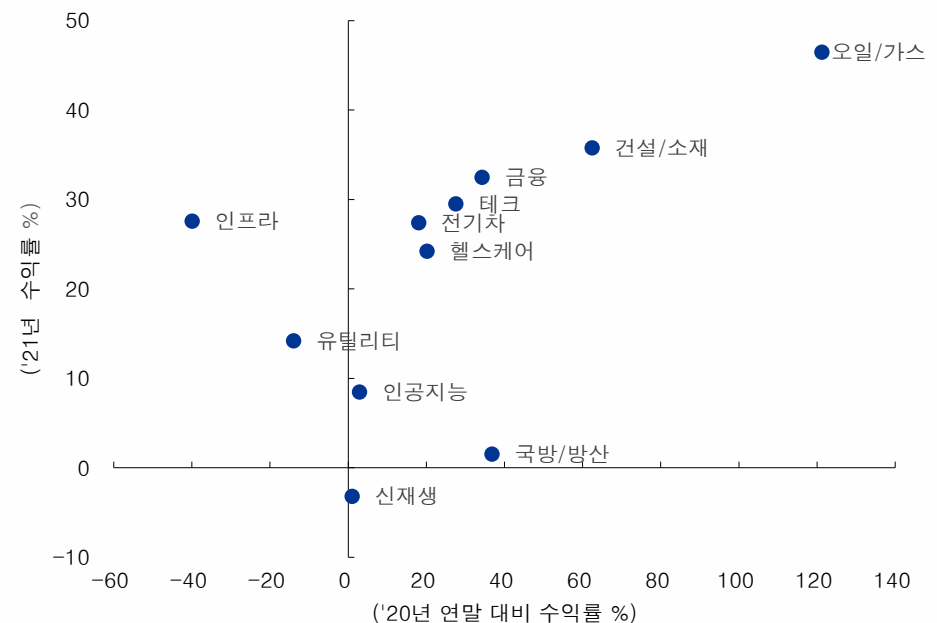
- 금번에는 후보별 산업 정책 기조가 크게 엇갈리지 않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승리 정당에 따른 정책 수혜주 양극화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 친환경(바이든) vs 전통 에너지(트럼프)를 제외하고 승리 정당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신정부 정책 수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FY2024 회계연도 정부 기술 혁신 분야 R&D 지원 부문에서 대중전략 강화 등을 위해 가장 많은 자금을 국방 산업에 배정
-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 정책 수혜보다는 펀더멘탈, 산업 트렌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당별 정책 수혜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3년간의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시장을 주도한 것은 친환경 아니라 트럼프의 대표 수혜주로 분류됐던 오일/가스, IT 업종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FY2024 연방 R&D 지출 계획(필수&재량 예산)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시장을 주도한 것은 트럼프 대표 수혜주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주1: 트럼프 수혜주: 오일/가스(XLE), 건설/소재(PAVE), 국방/방산(XAR), 금융(XLF), 테크(VGT), 유틸리티(XLU), 바이든 수혜주: 헬스케어(XLV), 전기차(DRIV), 인공지능(BOTZ), 신재생(QCLN), 인프라(IFRA)

2024년 미 대선 정책 수혜 산업

Stock Market

- 양 후보가 지지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소재, 국방/방산, 첨단 테크, 제조업 등은 미 대선 결과 상관 없이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해볼 수 있어 관련 업종 중심으로 미 대선 플레이 유효할 것. 다만, 에너지-신재생 산업의 경우 후보 당선 여부에 따라 상이한 접근 필요

TRUMP
수혜주

전통
에너지

인프라, 건설/소재, 국방/방산, 첨단 테크,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BIDEN
수혜주

미국 대선 정책 수혜 관련 종목

섹터	기업명	티커	세부산업	2023 YTD(%)	섹터	기업명	티커	세부산업	2023 YTD(%)	섹터	기업명	티커	세부산업	2023 YTD(%)
신재생	RIVIAN AUTO	CENX	Auto Manufacturers	27.3	전통에너지	EXXON MOBIL	XOM	Oil&Gas	-9.4	인프라	CENTURY ALUM	CENX	Mining	27.3
	ON SEMI	NVRI	Semiconductors	33.9		CHEVRON	CVX	Oil&Gas	-16.9		ENVIRI	NVRI	Environmental Control	33.9
	FIRST SOLAR	HE	Energy-Alternate Sources	15.0		CONOCOPHILLIPS	COP	Oil&Gas	-1.6		HAWAIIAN ELEC	HE	Electric	15.0
	TESLA	X	Auto Manufacturers	101.7		EOG RESOURCES	EOG	Oil&Gas	-6.6		US STEEL	X	Iron/Steel	101.7
	ALBEMARLE	ALE	Chemicals	-33.4		SCHLUMBERGER	SLB	Oil&Gas Services	-2.7		ALLETE	ALE	Electric	-33.4
	ENPHASE ENERGY	WTRG	Energy-Alternate Sources	-50.1		MARATHON	MPC	Oil&Gas	27.5		ESSENTIAL UTILIT	WTRG	Water	-50.1
건설/소재	PARKER HANNIFIN	AAPL	Miscellaneous Manufactur	58.3	국방/방산	RTX	RTX	Aerospace/Defense	-16.6	테크	APPLE	AAPL	Computers	58.3
	TRANE TECH	MSFT	Building Materials	45.1		AXON ENTERPRISE	AXON	Miscellaneous Manufactur	55.7		MICROSOFT	MSFT	Software	45.1
	UNITED RENTALS	NVDA	Commercial Services	61.3		HOWMET AERO	HWM	Aerospace/Defense	37.3		NVIDIA	NVDA	Semiconductors	61.3
	FASTENAL	AVGO	Distribution/Wholesale	36.9		L3HARRIS TECH	LHX	Aerospace/Defense	1.2		BROADCOM	AVGO	Semiconductors	36.9
	UNION PAC	ADBE	Transportation	18.6		TRANSDIGM	TDG	Aerospace/Defense	60.7		ADOBE	ADBE	Software	18.6
	MARTIN MAR	CRM	Building Materials	47.6		TEXTRON	TXT	Miscellaneous Manufactur	13.6		SALESFORCE	CRM	Software	47.6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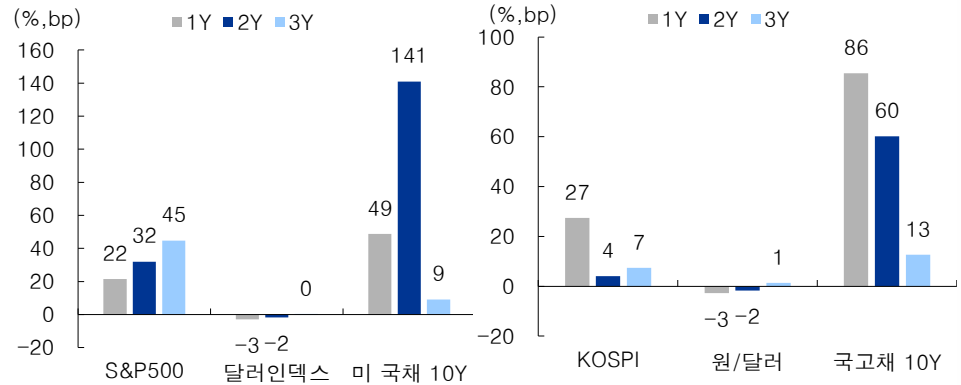
주1: 오일/가스(XLE), 건설/소재(PAVE), 국방/방산(XAR), 테크(VGT), 전기차(DRIV), 신재생(QCLN), 인프라(IFRA) ETF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장은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과거 사례를 통해 힌트 얻기

2016년 대선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 모습

- ▶ 주식 - (美) 강 : 자국 우선주의 정책 수혜로 미 기업 이익 상승하며 강세
- (韓) 강 → 약 : 신정부 정책 수혜 낙수효과 상승, 마-중 무역 전쟁 이후 하락
- ▶ 금리 - (美, 韓) 상 → 하 : SOC 확충 등 인프라 중심의 대규모 재정집행에 따른 기대물가 상승과 긴축 정책 맞물리며 금리 상승 견인. 이후 통화당국의 긴축 정책 피벗으로 금리 하락
- ▶ 달러 : 강 → 약 → 보합 : 미 우선주의로 인한 신흥국 경제 투자 위축 우려로 대선 직후 달러 가치 급등했으나,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안전자산 매력 약화되며 약세 전환. 이후 마-중 갈등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로 보합

2016년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주요 자산별 상승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2016년 미 대선 이후 자산별 주익률

2016년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주요 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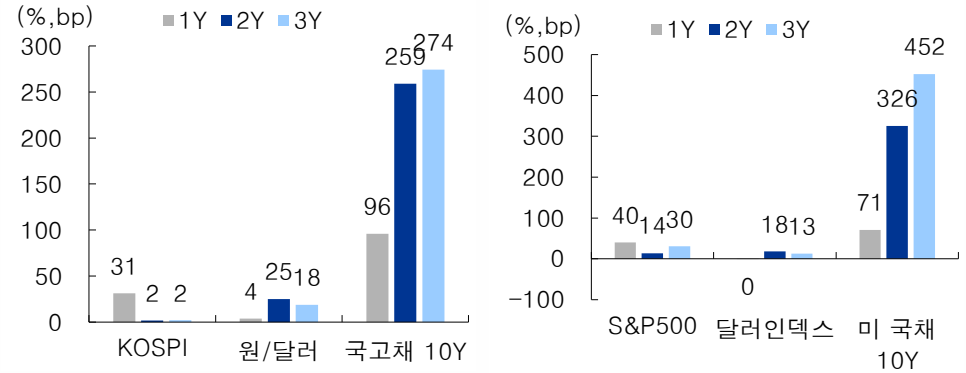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Quantiwise, IBK투자증권

시장은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과거 사례를 통해 힌트 얻기

2020년 대선 바이든 당선 이후 금융시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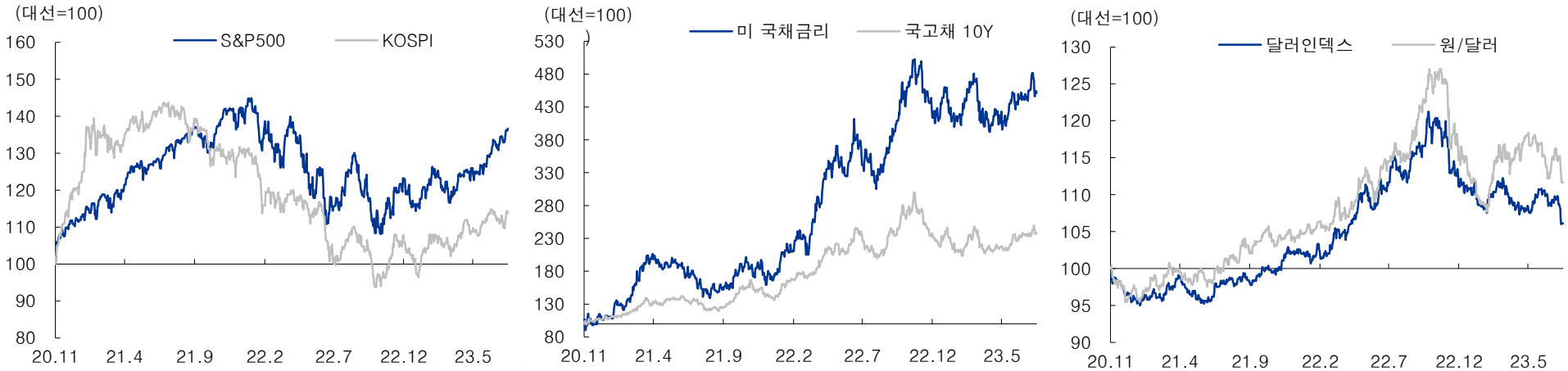
- ▶ 주식 - (美, 韓) 강 → 약 : 강한 경기 부양 기대로 리스크온 부각되며 급등. 이후 러-우 전쟁 리스크, 전 세계 고강도 긴축 여파로 하락
- ▶ 금리 (美, 韓) 상승 : 이전 트럼프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따른 강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금리 상승 압력을 가함.
- 이후 공급망 차질, 러-우 전쟁로 촉발된 고물가 억제를 위해 통화당국의 고강도 긴축 시작되며 금리 급등세 지속
- ▶ 달러 : 약 → 강 : 미 신정부 자유무역 기조에 따른 산흥국 투자 확대 기대로 바이든 당선 직후 Non-US 통화 강세. 이후 전 세계 고강도 긴축 기조 장기화로 인해 경기 불안 부각되며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 급등

2020년 바이든 대선 승리 이후 주요 자산별 상승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IBK투자증권
주: 2020년 미 대선 이후 자산별 주익률

2020년 바이든 대선 승리 이후 주요 자산 추이



자료: Bloomberg, Quantiwise, IBK투자증권

금리 상승 부담 제한적인 트럼프 승리가 우호적일 것

- 두 사례 모두 미 대선 이후 임기 초에는 신정부의 강한 경제 부양 기대로 국내외 주식 및 금리 상승하나, 정дал별 부양 기조에 따라 상승 폭 상이
- 반도체법, 학자금 지원, IRA 등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 정부보다 더욱 강도 높은 경기 부양 정책이 대선 직후~임기 초 증시 강세 재료로 작용
- 그러나, 대규모 자금 집행에 따른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및 국채발행 부담이 금리 추가 상승을 야기하며 현재는 증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
- 한편, 외환 시장의 경우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에 따라 대선 직후 미 달러화와 Non US 통화 가치 엇갈리는 모습
- 트럼프의 보호무역 주의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Non US 통화 가치 하락/강달러를 초래. 바이든의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는 VICE VERSA
- 금리 민감도가 높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추가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한적인 트럼프 승리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금융시장 모습

증시	금리	환율
<div>BIDEN</div> <div>강한 경기 회복 기대감 부각</div> <div>→ 상승 강도 높음</div>	<div>강한 재정 확대에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 국채발행 부담</div> <div>→ 금리 상승 압력 & 변동성 확대 위험</div>	<div>자유무역주의 & 다자주의</div> <div>→ Non US 통화가치 상승</div>
<div>TRUMP</div> <div>경기 회복 기대감 부각</div> <div>→ 상승 강도 양호</div>	<div>제한적 재정 집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불안 진정 & 국채발행 부담 진정</div> <div>→ 금리 상승 압력 & 변동성 확대 제한적</div>	<div>보호무역주의</div> <div>→ 강달러</div>

금리 민감도가 높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추가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한적인 트럼프 승리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자료: IBK투자증권

최근 몇 년간 주가와 금리간 역의 상관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주: 주간 수익률 기준

바이든 재임 시 금리 상승 불안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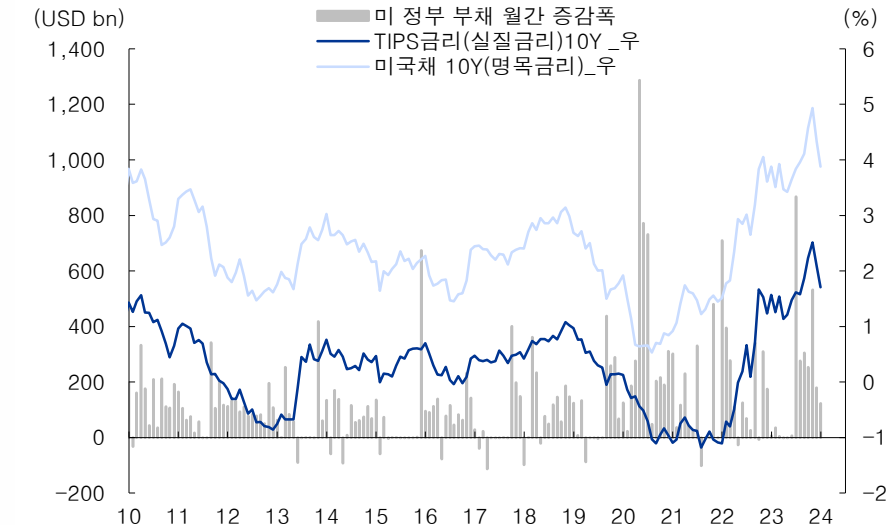
- 바이든 대통령 연임 성공 시 재정적자 불안 해소되지 못한 채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기조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상승 압력 높여 증시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것
-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은 주로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 및 미국채 발행 부담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에 기인
-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개선 방안 제시했으나,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하원 반발로 인해 원안 대로 시행될 가능성 낮음
- 이로 인해 적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충에 실패할 경우 실질금리는 하방 경직성 보이며 금리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음
- '25년 연초 예정된 부채한도 협상 앞두고 섰다운 리스크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인

FY2024 바이든 행정부 증세 예산안

주요 내용	세율
억만장자 자산증가분 세율	최소 25%
개인소득세율	37% → 39.6%
법인세	32% → 28%
메디케어 부가세	3.8%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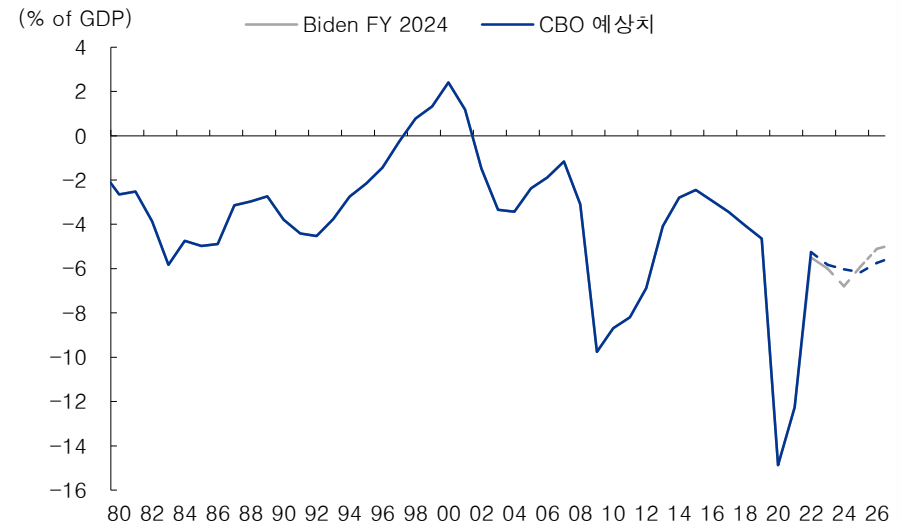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참조, IBK투자증권

미 정부부채 증감 폭 높아질수록 실질금리 상승하며 명목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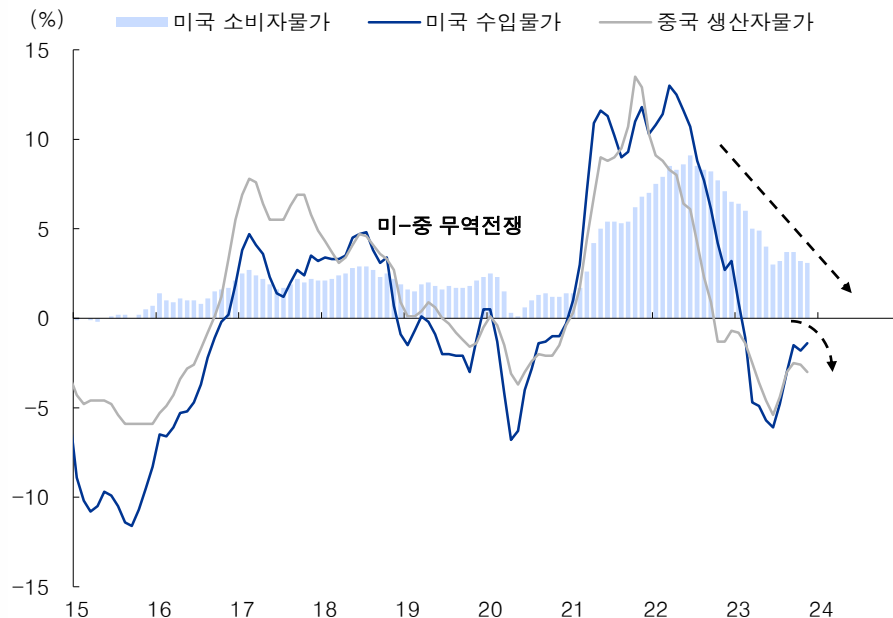


자료: CBO, CRFB, IBK투자증권

트럼프, 제한적인 재정집행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은 제한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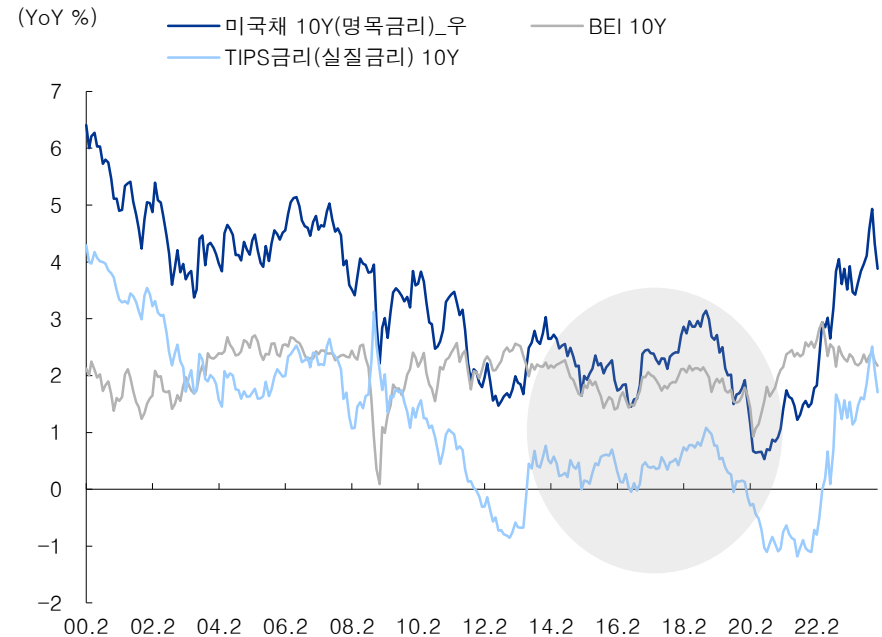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 대비 제한적인 재정집행으로 금리 상승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중 추가 고율 관세 실시되면 미 수입물가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높아지며 이는 금리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상/하원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원안대로 정책 실현될 가능성 낮아 보임
- 만약, 일부분 시행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리스크로 인한 中 디플레이션 장기화로 '18년도와 같은 수준의 비용 전가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 다만, (트럼프 승-상/하원 공화당 승)Red Wave 현실화될 경우 정부 정책 추진 동력 높아지게 되며 관련 정책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은 필요

中 디플레이션 장기화로 '18년도와 같은 비용 전가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힘들 것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국 명목금리, 기대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MEMO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만족팀 1588-0030, 1544-0050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역삼	02) 556-4999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부산센터	051) 805-290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강남	02) 2057-93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